

2025 Vol.25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C O N T E N T 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5 Vol.25

발행일 | 2025.10.31

발행인 |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 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TF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인공지능(AI)시대의 마중물인 대학혁신지원사업
호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단장_ 송창수
- 06** 환경 불확실성 시대, 대학교육 혁신 전략의 방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단장, 트리니티융합대학 학장, 영어교육과 교수_ 김지은
- 08** 혼자가기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My Healing Partner를 찾아서
경일대학교 통합상담관리센터 전임연구원_ 이유리

성과사례

- 10** 경동대학교 A-A-R 기반 학습공동체
(캠퍼스 초연결 플랫폼을 통해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예측-실천-성찰 학습 공동체)
경동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전임연구원_ 박영진
- 14** 전공의 벽을 허물고 선택의 폭을 넓히다: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을 위한 전공박람회 성공적 개최
경기대학교 교육혁신처 전공설계융합지원센터 전공설계융합팀 주임_ 김다빈
- 18** AI학사 챗봇 도입 및 운영-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학사 지원 강화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담당_ 신민
- 20** [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같이” 실천하는 공부, “함께” 이루는 변화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업상담부 연구원_ 이선미
- 24** “만나고! 묻고! 경험하다!” 2025 ICCU 전공 박람회
인천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 지원실 담당_ 이윤주
- 26** 함께 성장하는 시간: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과사례
신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_ 김가영
- 30**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AR멘토링의 힘
안양대학교 교육역량강화센터 연구원_ 전해림
- 34** 함께 이루는 혁신, 그 시작은 사업의 성과관리로부터!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팀원_ 김선화
- 38** 교육수요 기반의 다관점 전공교육과정 평가-인증
청주대학교 교육과정인증센터 연구원_ 이현주
- 42**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 동대문구 외대썸 영어브릿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 과장_ 강미리



14



26



46



50

- 46 SL 장기프로젝트 - Social Impact : 학생 주도의 사회문제 탐구-향해-개척 도전기
한남대학교 서비스러닝센터 조교수_ 안진성
- 50 AI와 창의성의 만남, 한성대학교 '글로벌 한성포럼' 개최
한성대학교 글로벌협력처 처장_ 김지현

학생사례

- 54 학생이 직접 만든 차세대 학사정보시스템, 그 여정의 기록 : 건국대학교 KUSD(학생개발팀)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_ 정지원
- 58 국제 사진 교류 프로그램 'Photographing London' 참여 후기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학생_ 홍도은
- 62 2025학년도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UROP) 참여 후기 공유
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_ 한희진
- 66 함께하며 깊이가 있게 전달하는 새로운 독서 방식 - 독서 PT 경연대회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학생_ 이유립
- 68 AI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A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완학습"
삼육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학생_ 정지원
- 72 문제에서 답을 찾다, 그리고 확신으로 전주대학교 진로 해시태그, 흔들림을 성장으로 바꾸다
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_ 김영은
- 76 창업가로의 도전, TU-KCC 창업동아리에서 찾은 나의 성장 이야기
한국공과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전공 학생_ 이자명

행사소식

- 80 김천대학교 GU-학생지원 All-in-One (올인원) 프로그램 성황리에 종료
김천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팀장_ 신명섭
- 82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지역사회임팩트센터의 따뜻한 발걸음
한국성서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직원_ 신은지

서포터즈

- 8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6기 해단식

인공지능(AI)시대의 마중물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송창수

호남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단장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ChatGPT가 논문을 쓰고, 자동화 시스템이 진단을 내리는 세상에서, 과연 대학은 여전히 필요한가? 많은 이들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대학교육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데 탁월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며 협력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대학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 역량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전공 지식 습득을 넘어, 토론과 발표,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AI가 제공할 수 없는 심도 있는 학습 경험을 선사한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그 정보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은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는 AI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AI 개발자는 기술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하고 윤리적인 AI를 설계할 수 있다.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교양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갖추고,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지식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인터넷과 AI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교수와 함께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단순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AI시대의 대학은 단순히 졸업장을 수여하는 기관을 넘어,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삶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윤리적 판단력은 대체될 수 없는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일깨우고 키워내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SI는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교육받은 인간의 몫이다. 대학은 단순히 직업을 위한 준비 공간이 아니라, 기술을 넘어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다. AI 시대에도, 아니 AI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SI는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데 능숙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대학은 전공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모든 전공에서 SI 기초 교육을 필수화 하고, 데이터 분석·프로그래밍·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가르쳐야 한다.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S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형 프로젝트, 인턴십,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I가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윤리적 판단력과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해진다. SI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진다. 대학은 기술 개발과 함께 그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은 기술의 선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번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배우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즉,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는 졸업 후에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된다.

대학교육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회적 이동성의 사다리다. 특히 SI로 인해 일자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재교육과 평생학습의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단순히 학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AI 시대의 대학은 더 이상 '정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있게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대학은 그 중심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파도타기를 즐겨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교원에 대한 적극적 변화의 의지를 부어 넣어 주어야 함과 아울러 신규 교원에 대한 초빙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문을 이어 나가기야 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산업화시대에 맞추어져 있는 학교 인프라를 AI시대에 맞추어 개선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변화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AI시대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환경 불확실성 시대, 대학교육 혁신 전략의 방향



김지은

가톨릭관동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단장
트리니티융합대학 / 학장
영어교육학과 / 교수

▮ “불확실성 시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령인구 급감,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은 단순한 외부 환경 변화가 아니라 대학 존재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다. 그렇다면 대학이 찾아야 할 답은 무엇일까?

이제는 ‘학위’만으로 학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사회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능력과 가치, 곧 ‘자신만의 브랜드’를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이 잠재력을 발견하며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융합과 초학제적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대일수록 요구되는 것은 복합적 사고이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 특정 학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OECD Education 2030은 이를 ‘복합적 역량(Compound Competencies)’으로 개념화하며, 학문 간 연계와 초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학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진로 지도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관동대는 6개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트리니티융합대학을 출범시켰으며, 자율전공학부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전공을 아우르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공 이수 요건을 유연화하여 학생들이 심화전공, 복수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JA(Joint Appointment) 교원 제도를 도입하여 학문 간 융합 교육의 토대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는 다양한 학문·산업 분야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며, D.랩(Dream, Design, Do)은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학문 선택을 넘어, 개인의 경쟁력과 브랜드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전략이 되고 있다.

2.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만의 성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학생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화된 학습 경로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습자의 성장 궤적을 추적하고 강점 중심의 발전 경로를 설계하는 것, 학업뿐 아니라 정서·관계·진로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성장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강조하는 전공자유선택제와 지원체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학 후 일정 기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한 뒤 자신에게 맞는 학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자기설계 전공을 통해 진로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학문 경로를 직접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대학들은 AA(Academic Advisor) 제도, 현장중심교육,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과·비교과·진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개별 맞춤형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학생이 자기 고유의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결국 자신만의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3. AI와 인간중심교육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학은 디지털 대전환이 몰고 온 근본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AI는 이미 사회와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으며, 대학 교육에서도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익히고, 디지털 기술과 인간적 통찰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단순한 기술 교육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일 수 있다. 비판적 성찰, 윤리적 판단,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은 이러한 인간적 가치와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I 활용 교육뿐 아니라 하트웨어(Heart-ware)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 역량과 인간 고유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동시에 인간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론적 차별성을 지닌 인재'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 “대학은 학생의 가능성을 가치로 전환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대학이 내놓아야 할 답은 졸업장이나 획일화된 성과가 아니다. 오히려 각 학생이 지닌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지향하는 “통합형 교육혁신 생태계”는 이러한 철학을 구체화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자기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하다. 결국 대학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현실적 가치로 전환하는 플랫폼이자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My Healing Partner를 찾아서



이유리

경일대학교
통합상담관리센터
전임연구원

경일대학교는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응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또래상담 교육 및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해오고 있다.

또래상담자 기본교육은 또래상담자의 활동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다지는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기본 소양’,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사례 연습’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자로서 전문성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학생들 또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내면을 성찰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또래상담자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래상담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또래 학우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생-학생 멘토로서 친근한 도움을 제공하고 캠퍼스 생활 중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상담관리센터로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맡는다.

1)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총 8시간 교육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의미’, ‘친구 관계 돌아보기’, ‘대화하는 친구 되기’, ‘도움 주는 친구 되기’, ‘상담기법’, ‘사례분석과 연합극’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문적 향상과 내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의 존중과 수용, 공감하는 법을 배워 주변 친구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정화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에 참여한 학생A는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고 언급했으며, 학생B는 ‘또래상담 교육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활동은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 재학생들에게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제공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들은 주기적으로 정기모임 및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또래상담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진행된다.

또래상담자란 재학생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만큼 재학생들 스스로 건강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또래상담자 활동에 참여한 학생A는 ‘전문상담사가 아닌 또래와 상담을 진행하니 그 나이대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좋았다.’고 언급했으며, 학생B는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교내 친구들과의 대화를 유연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경동대학교 A-A-R 기반 학습공동체 (캠퍼스 초연결 플랫폼을 통해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예측-실천-성찰 학습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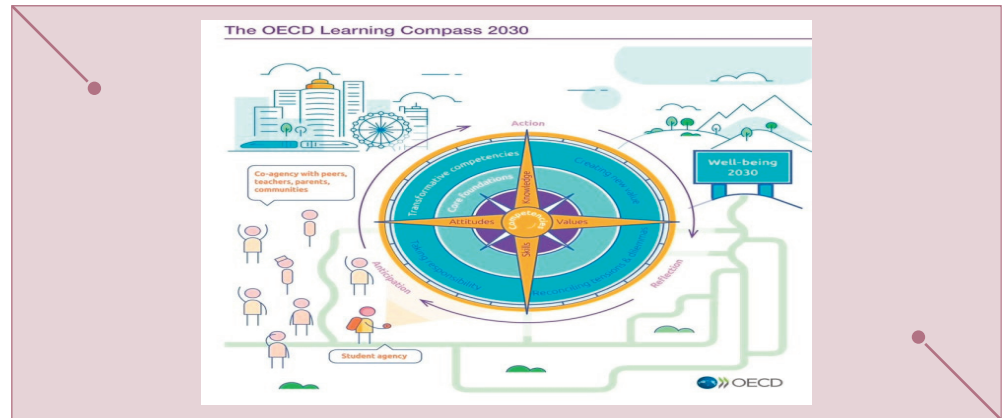


박영진

경동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전임연구원

추진 배경 및 목적

경동대학교는 '민족문화창달과 인류공영 실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설립 이념에 두고 본교는 인성, 리더십, 합리적 사고, 글로벌 소통, 자기주도, 사회 기여라는 6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 교육과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VISION 2029」라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혁신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관리 모델 구축을 통해 학생 성공 브랜드 강화를 추진 중이다.



OECD Learning Compass 2030의 시사점

OECD는 2019년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학생 스스로 학습을 조향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Agency) 과 타인과 함께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공동 주도성(Co-agency) 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예측(Anticipation), 실천(Action), 성찰(Reflection) 의 순환적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가 미래를 전망하고, 실행에 옮기며, 경험을 되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동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담론을 반영하여, A-A-R 학습 주기를 대학 교육 현장에 도입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성찰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 자기주도성 강화: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 함양
- 협업역량 향상: 팀 기반 학습을 통해 상호 신뢰와 공동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학습 경험의 심화: 예측-실천-성찰을 통한 순환적 학습 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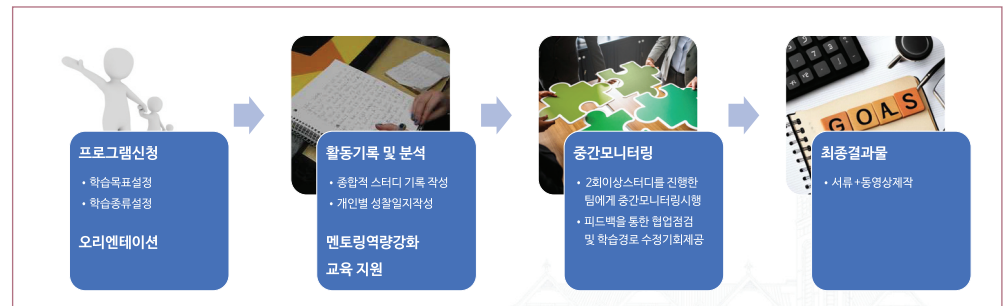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를 학습하는 주체로 성장하며, 대학은 글로벌 교육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학습 모델을 확산할 수 있게 된다.

■ 운영내용

경동대학교 학습공동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 에듀투게더: 학생-학생 간 스터디 그룹
- 사제동행: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학습
- 멘투맨: 학생 간 학생 1:1로 학습

참여 학생들은 신청서에서 개인정보, 스터디 목표, 협업을 통한 기대 효과, 주차별 활동 계획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예측(Anticipation)’ 단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1단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플랫폼(카카오휴크)을 활용하여 학습공동체 운영 방식, 제출물 기준, 평가 지표를 안내하고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를 위해 자료(PPT·가이드북)를 공유하여,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기준과 목표를 이해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기대와 공식적 요구를 비교하며 학습 목표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멘토링역량 강화교육

중·고교 시절의 부정적 협업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협업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는 멘토링역량강화교육은 사회 변화에 따른 리더십·팔로워십의 재정의, 협업 개념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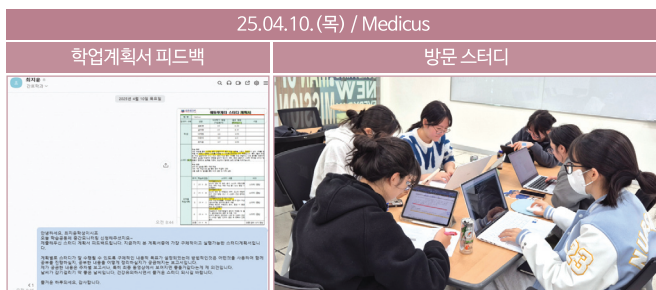
AI 협업도구 활용법 등의 주제로 강연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협업을 단순한 과제가 아닌 사회적·전문적 필수 역량으로 이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중간 모니터링

경동대는 메디컬(원주), 메트로폴(양주), 글로벌(고성) 캠퍼스 등 3개 캠퍼스로 분산되어 있어, 카카오휘크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카카오휘크를 통해 각 공동체별 단톡방을 개설하여, 주차별 활동 점검·질의응답·민원 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스터디 공간을 제공하여 최소 1회 이상 대면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혼합 모니터링은 학습공동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4단계: 산출물 제출 및 우수사례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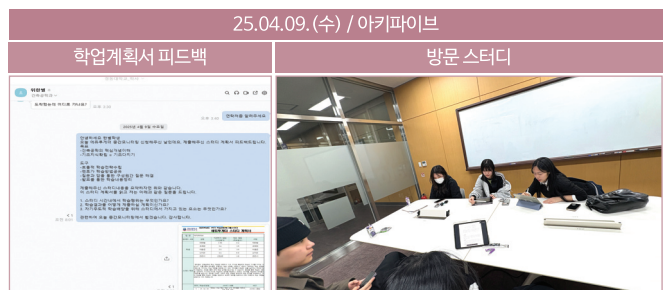
모든 팀은 4회 이상 스터디 보고서와 3분 이상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참여 인원, 학습 목표, 활동 내용, 성과와 개선점, 차후 계획, 그리고 팀원별 자기성찰일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산출물 제출 과정은 단순한 결과 보고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예측(Anticipation) - 실천(Action) - 성찰(Reflection)의 순환적 학습 주기를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 학습 목표와 기대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Anticipation), 실제 활동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 협업의 과정을 경험한다(Action). 이후 보고서와 동영상, 자기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성찰하며 차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Reflection). 이와 같은 A-A-R 학습 주기의 적용은 학습자



25.04.10.(목) / 뱃공즈



메디컬캠퍼스



25.04.16.(수) / 아자아자파이팅 4기



메트로폴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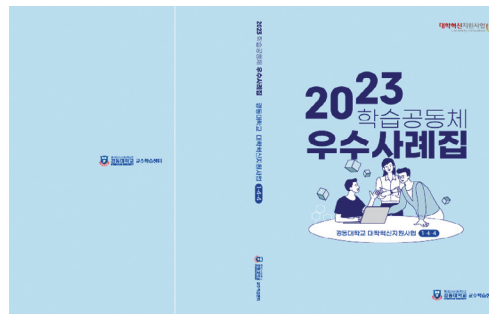
스스로 학습 과정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심화와 협업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 산출물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되며, 우수팀은 VR 성과공유회에서 영상을 공개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연 1회 혁신지원사업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대학 구성원들과 공유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우수사례공유회



2023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사례집



2024학년도 학습공동체 우수사례집

성과 및 의의

학습자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협업 실행, 성찰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주도성과 협업역량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고서와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언어적·시각적 산출물로 전환하며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이 증진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A-A-R 학습주기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을 단순한 과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계획

대상 확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적 협업 경험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새로운 ICT 도구를 접목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 심화유도

성과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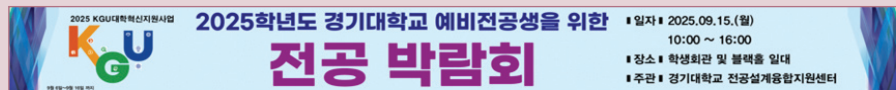
Performance case

전공의 벽을 허물고 선택의 폭을 넓히다 전공자율선택제 입학생을 위한 전공박람회 성공적 개최



김다빈

경기대학교
 교육혁신처
 전공설계융합지원센터
 전공설계융합팀
 주임



2025 KGU 대학혁신지원사업 | 2025학년도 경기대학교 예비전공생을 위한 **전공 박람회**

일차: 2025.09.15.(월) 10:00 ~ 16:00
 장소: 학생회관 및 별채를 임대
 주관: 경기대학교 전공설계융합지원센터

스탬프 행사
 3개 학과(전공) 필수 방문 후 스탬프를 받아야 시간 상용을 지원합니다.

사전 광범
 스탬프 3개 적용 후 홍보사를 신청하여 상용을 지원합니다.
 1일: 소니 뉴스레터를 통해 필수 방문 학교
 2일: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하기

주요 광범
 스탬프 3개 적용 후 홍보사를 신청하여 상용을 지원합니다.
 1일: 소니 뉴스레터를 통해 필수 방문 학교
 2일: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하기

QR코드 | QR코드를 스캔하여 행사 현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QR코드 | QR코드를 스캔하여 행사 현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수원캠퍼스 전공박람회
 학과별 지도

스프링캠퍼스 전공박람회
 학과별 지도

스프링캠퍼스 Zone (17-21)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신원대학교, (신원대학교)
 2. 경영학부, (경영학부)
 3. 경영학부, (경영학부)
 4. 경영학부, (경영학부)

융합과학대학 Zone (22-24)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2.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3.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인문대학 Zone (25-29)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인문대학, (인문대학)
 2. 인문대학, (인문대학)
 3. 인문대학, (인문대학)

신원대학교 Zone (30-34)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신원대학교, (신원대학교)
 2. 신원대학교, (신원대학교)
 3. 신원대학교, (신원대학교)

스포츠대학 Zone (35-39)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스포츠대학, (스포츠대학)
 2. 스포츠대학, (스포츠대학)
 3. 스포츠대학, (스포츠대학)

경영과학대학 Zone (40-44)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경영과학대학, (경영과학대학)
 2. 경영과학대학, (경영과학대학)
 3. 경영과학대학, (경영과학대학)

인문대학 Zone (45-49)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인문대학, (인문대학)
 2. 인문대학, (인문대학)
 3. 인문대학, (인문대학)

스포츠대학 Zone (50-54)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스포츠대학, (스포츠대학)
 2. 스포츠대학, (스포츠대학)
 3. 스포츠대학, (스포츠대학)

융합과학대학 Zone (55-59)
 필수 방문: 학과 학과(전공)
 1.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2.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3. 융합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2025 전공박람회 리플렛

경기대학교 전공설계융합지원센터(센터장 이희정 교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학 진학자의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 '전공자유선택제' 입학생(이하 멘티 학생) 584명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양일간 「2025학년도 전공자유선택제 입학생을 위한 전공박람회」(이하 전공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본 전공박람회는 오는 11월, 주(主)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멘티 학생들에게 2학년 진학 전 본인이 희망하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선택을 위한 상담의 장 마련, 학과별 교내·교외 활동 안내, 학과 선택에 따른 진로설계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전공박람회에는 전공자유선택제 참여 학과(주전공 선택 가능 학과)와 더불어 예체능 및 사범계열 등 전공자유선택제 미참여 학과(전과제도 준용 학과)까지 모두 57개 학과(전공)에서 281명의 재학생이 멘토로 참여(이하 선배멘토)하였다.

기존의 전공박람회가 단순한 학과 소개 정도로 그쳤다면, 이번 전공박람회의 경우 멘티 학생들이 주전공 선택 이후 2학년 진학시점부터 어떻게 학사설계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선배멘토들을 대상으로 전공자유선택제 학사제도 및 학과별 학사체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박람회에서 선배멘토들은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멘티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선택했을 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 학과 내 필수교과목 추천 및 전공교과목에 대한 컨설팅과 더불어 학과내 학회, 소모임 등 해당 학과만의 특별한 활동에 대한 소개 등 멘티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판단하는 대표 지표인 참여건수와 만족도를 보면, 먼저 참여건수의 경우 총 2,289건으로 멘티 학생 1인당 약 3.9개 학과의 멘토링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멘티 학생들이 다양한 학과에서 멘토링을 받아, 전공 선택과 진로설계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4.62점(5점척도)으로 집계되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 멘티 학생으로 참여한 1학년 유O비 학생은 “이번 전공박람회는 단순히 학과에 대한 정보를 넘어 졸업 후 진로, 학과 동아리 등 현실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특히 선배멘토들의 본인의 경험에 빚댄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전공박람회에서 우리 학교의 모든 학과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어 학과 선택에 대해 더욱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선배멘토로 참여한 관광개발경영학과 3학년 강O석 학생은 “이번 전공박람회를 통해 우리 학과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멘토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과의 다양한 매력과 앞으로의 가능

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우리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본 박람회 멘티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선배멘토들에게도 전공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획의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박람회 진행 사진



전공박람회 진행 사진

경기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여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방향인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 학사 챗봇 도입 및 운영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학사 지원 강화



신민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육혁신팀
담당

▣ 배경

대구대학교 교육혁신원은 신속·정확한 학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AI 학사 챗봇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8월 18일(월)에 내부 테스트 과정을 마치고, 지속적인 수정과 협의를 통하여, 9월 1일(월)에 공식적으로 메인 홈페이지와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AI 학사 챗봇을 오픈하였습니다.

AI 학사 챗봇은 현재 각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 학사 안내, Q&A, 대학 규정과 유튜브 채널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24시간 상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신입생, 평생학습자 등 외부인 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개방성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진 일정 및 주요 성과

1) 추진 일정

기간	내용	비고
2025. 6.	업체선정, 시스템 준비	
2025. 7. ~ 9.	시스템 적용	메인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입학처
2025. 9.	대학전체 오픈	
2026. 2.	효과 분석	

※ 운영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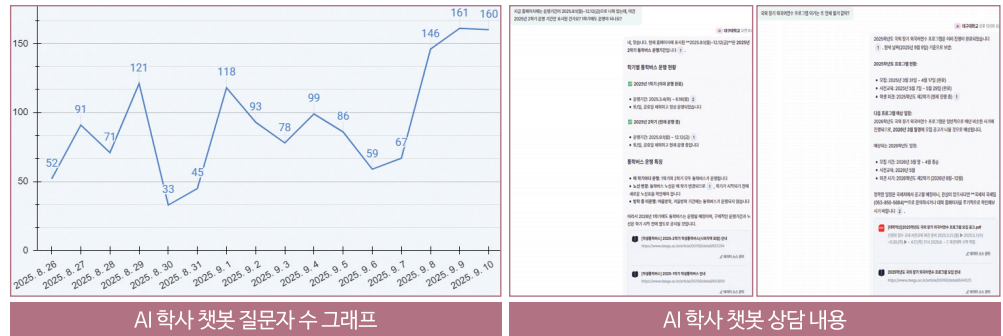
AI 학사 챗봇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수업, 행사 등 학사 관련 문의에 대하여 24시간 상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학생 문의에 대한 만족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학습을 통하여 단편적인 질문이 아닌, 규정, 수강, 기숙사 등 복합적인 질문에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챗봇으로 한번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을 재학생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대학 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챗봇을 통해 학사, 교과, 비교과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부정확한 답변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직접 개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SI 학사 챗봇을 이번 수시모집 기간 이전에 도입함으로써, 예비 신입생들의 입학과 관련된 문의에 대하여 최신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입생 수시모집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챗봇 시범 운영부터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SI 학사 챗봇이 반복적인 질문들을 대신 대답함으로써 교내 직원 업무 효율성에 기여하고 주된 문의를 데이터화함으로써 교내 직원들이 학교 운영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교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SI 학사 챗봇을 통하여 반복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닌, 규정에 없는 질문에만 답변함으로써 업무의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또한, 수강 신청 기간이나 졸업 직전 등 문의가 폭주하는 특정 시간대에는 SI 학사 챗봇을 활용하여 업무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등 비상시 빠른 대응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SI 학사 챗봇이 상당한 주요 내용과 질의 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대학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학생·교직원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은 SI 학사 챗봇을 통하여 최신화된 정보를 24시간 상시 및 즉시 제공받음으로써 학생들의 질의응답 대기시간이 최소화됨에 따라 재학생 문의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및 다양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글로벌 오픈 캠퍼스 이미지를 구축하고, SI 학사 행정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선도 대학의 이미지 또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같이” 실천하는 공부, “함께” 이루는 변화



이선미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업상담부
연구원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장애학생 및 유학생 대상 집단상담,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자살예방교육,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학업 상담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 체계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중 ‘스윗듀(Study With DU)’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배경

현재 일부 학생들은 혼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석이나 과제 제출 등 학업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전반적인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동기를 강화하고 학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업 적응의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열등감이나 위축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필요하다.

▮ 성과사례 추진사업 [학업 증진 상담 프로그램]

1) 스윗듀(Study With DU)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혼자서 공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센터에서는 매 학기마다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10명~13명씩 구성된 소모임 단위로 진행되며, 참여 학생들은 매주 개별적으로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열풍타’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공부 내용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총 3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소모임 구성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개인의 학습 방법이나 학업 스트레스 해소 전략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도서관 스터디룸, 센터 내 상담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이어갈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장 변화는 표 1에, 성적 변화는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학습전략검사 실시 및 해석

그룹 스터디

표 1. 2024-2학기 스윗듀(Study With DU) 참여자 성장 변화 비교

변인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t
	M(SD)	M(SD)	
학업적 자기효능감	3.73(.66)	4.09(.54)	-2.132*
학업지연행동	3.06(1.16)	2.15(1.00)	3.243**

*p<.05, **p<.01

스윗듀(Study With DU)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2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 지연행동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학업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3.73점에서 참여 후 4.09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p<.05), 이는 프로그램이 학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반면, 학업 지연행동은 프로그램 전 평균 3.06점에서 2.15점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여(p<.01), 과제 미루기나 학업 회피 등의 부정적 행동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윗듀 프로그램이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조절력을 기르며 실제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 효과적인 교육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2. 2025-1학기 스윗듀(Study With DU) 참여자 성적 변화 비교

학생구분	프로그램 참여 전 성적	프로그램 참여 후 성적	인터뷰 요지
일반사회교육과 A학생	3.33	4.44	“열풍타를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보여서 다들 미리 공부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목표를 적어야 되니까 남들보다 과제도 빨리 완성하고 그만큼 검토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과제 점수도 상승했어요.”
유아교육과 B학생	4.09	4.16	“성적 향상에 스윗듀 요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풍타를 보면 공부 시간 엄청 많이 짝하시는 분들이 있던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하면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공부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경영학과 C학생	A	A+	“제가 1학년이라 그 전에 비교할 성적이 없지만 고등학교도 경영 학과여서 그때랑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공부욕도 생겼고 재밌기도 했어요. 저 성적장학금도 받았어요.”

스윗듀(Study With DU) 프로그램은 실제로 여러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A학생(일반사회교육과)은 프로그램 참여 전 성적이 3.33이었으나, 참여 후 4.44로 1.11점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A학생은 “열품타에 들어가면 다른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보여서, 나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빠르게 완수하는 습관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B학생(유아교육과) 역시 사전 성적 4.09에서 사후 4.1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B학생은 “열품타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극을 받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공부 시간이 훨씬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또래의 학습 태도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C학생(경영학과)은 대학에서 첫 학점을 A+로 받았다. C학생은 “공부 루틴도 생겼고 재미도 붙었다. 성적도 학금도 받았다”고 하며, 프로그램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스윗듀 프로그램은 단순한 과제 수행 지원을 넘어, 학생 개인의 학습 습관 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목표 설정, 시간관리,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도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한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대효과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소모임 집단원들과 함께 공부 인증을 진행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형성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업 수행 동기를 유지하고, 점진적인 학업 역량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주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밀착형 개입은 학업 수행력 향상은 물론,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만나고! 묻고! 경험하다!” 2025 ICCU 전공 박람회



이윤주

인천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 지원실
 담당

추진배경 및 목적

인천가톨릭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직무 전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 박람회를 기획·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학생들이 전공 선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학과별 특성과 교육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전공 이해도를 높였고, 교수와 재학생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전공 선택과 관련된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과나 중도포기와 같은 학업 부적응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와 대학생활 몰입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개요

ICCU 전공 박람회는 2025년 9월 18일(목) ~ 9월 19일(금), 양일간 인천가톨릭대학교 가브리엘관 1층 로비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유전공지원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유전공 학생 중심으로 전체 재학생 및 다중전공 선택을 고려 중인 학생 등 약 130명이 참여하였다.

순	운영 구성 요소	주요 내용
1	학과 / 전공 부스 운영	① 각 학과별로 부스 설치 ② 전공별 커리큘럼 안내, 졸업 및 진로 사례 전시, 학과 주요 활동 및 성과전시 ③ 재학생 멘토 상주 → 학생들과 대화, 실질적 경험 공유
2	상담 및 진로 멘토링	① 전공 교수 및 재학생 멘토 배치 ② 1:1 상담 및 1:N 그룹 상담 ③ 학생들의 진로 탐색, 전공 선택 고민 해소 지원
3	자유전공·다중전공·융합전공 안내 섹션	① 제도 설명, 실제 학습 경로 예시, 신청 절차 등 안내 ② 기존 수강생 또는 졸업생 사례 발표 포함
4	특강 및 패널 토크 / 프로그램 체험	① 전공별 대표 교수 및 외부 초청자 특강 ② 선배들의 진로 경험 패널 토크 ③ 전공 실습 또는 체험 가능한 경우 워크숍이나 미니 실습 세션

추진성과

이번 ICCU 전공 박람회는 학생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행사 동안 학생들은 전공별 커리큘럼과 진로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교수 및 재학생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더 합리적인 전공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공과 학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중전공 및 자유전공 제도에 대한 이해가 확산하면서 융합 교육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전공 선택 과정에서의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전과, 휴학, 중도 포기와 같은 학업 이탈 사례가 줄어들었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행사 전체 사진 >>>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함께 성장하는 시간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과사례



김가영

신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추진배경

신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자 하였다. 최근 대학생 집단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스트레스, 미루는 습관, 시험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한 집단상담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존에는 개인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심리 지원이 보편성과 상호작용의 효과가 큰 집단상담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2023년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주제 도입 및 프로그램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다.

이에 2024년에는 시험불안 극복하기 등 수요기반 신규 프로그램 신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 정량 분석, 학생 참여율 확대를 위한 학과 협조 및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전문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넘어, 자아성장 및 학생성공 핵심역량 증진까지 연계되는 통합형 상담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운영내용

단계	내용	협업
준비 및 계획 단계		
사전 분석 및 주제 발굴	▶ 기초자료 분석 : 전년도 자아성장 집단상담 결과보고서 및 참여자 피드백을 분석, 기존 프로그램 효과성 및 한계 점검	대학혁신지원 사업단
	▶ 참여자 요구 반영을 통한 주제 다양성 확보 : 반복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유지 및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해 주제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 반영	
	▶ 신규 주제 기획 및 프로그램 구성 방식 개선 : '시험불안 극복하기' 프로그램 신규 기획 및 체험 중심 활동 비중 확대	

단계	내용	협업
준비 및 계획 단계		
주제별 설계 및 전문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회기 구성 : 각 주제별 집단상담 회기 구성, 목표, 활동지도안 수립 ▶ 전문성 기반의 강사 위촉 및 사전 역량 강화 : 실무 경험을 고려한 전문가 배치 및 강사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강사-센터 간 유기적 협업체계 및 피드백 순환 구조 구축 : 회기별 중간점검, 사전·사후 논의 및 집단상담 종료 후 소감 및 제안사항 공유 	센터 직원상담원
참여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 홍보 전개 : 공문, SNS 채널 활용,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접근성 향상 ▶ 홍보를 위한 활동자료 아카이빙 : 활동사진, 참여 후기 등은 이후 유사 프로그램 운영 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저장·관리 	학과 및 전공교수
실행 및 관리 단계		
서비스 러닝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4월~11월 동안 총 20개 집단(회기 수 72회) 운영 ▶ 대인관계 기술, 스트레스 관리, 미르는 습관 바꾸기, 시험불안 극복, 힐링액티브 등 5개 주제로 구성 ▶ 워크북, 활동지, 시각자료 등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형 운영방식 강화 	센터 직원상담원
평가 및 개선 단계		
집단상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정량적 개선 확인 ▶ 참여자 만족도 및 핵심역량 평가 ▶ 참여자 의견 반영 및 주제 구성 계획 	이수 학생

III. 운영 결과

2024년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자기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개 주제(대인관계 기술, 스트레스 관리, 미르는 습관 바꾸기, 시험불안 극복, 힐링액티브)로 구성되어 20개 집단, 총 72회기 운영되었다. 각 프로그램 회기 전·후에는 자가보고식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변화 정도를 정량

적으로 측정하였고, 전체 만족도 및 핵심역량 자가진단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기술 프로그램에서는 관계 역량이 평균 21.29% 향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21.61%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정량적 개선이 나타났다.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4.78점 (5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높았으며, 자가진단 기반 핵심역량 선택 항목에서는 ‘소통’ (58.8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향후에는 참여자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정신건강, 자존감,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주제의 신규 프로그램 확대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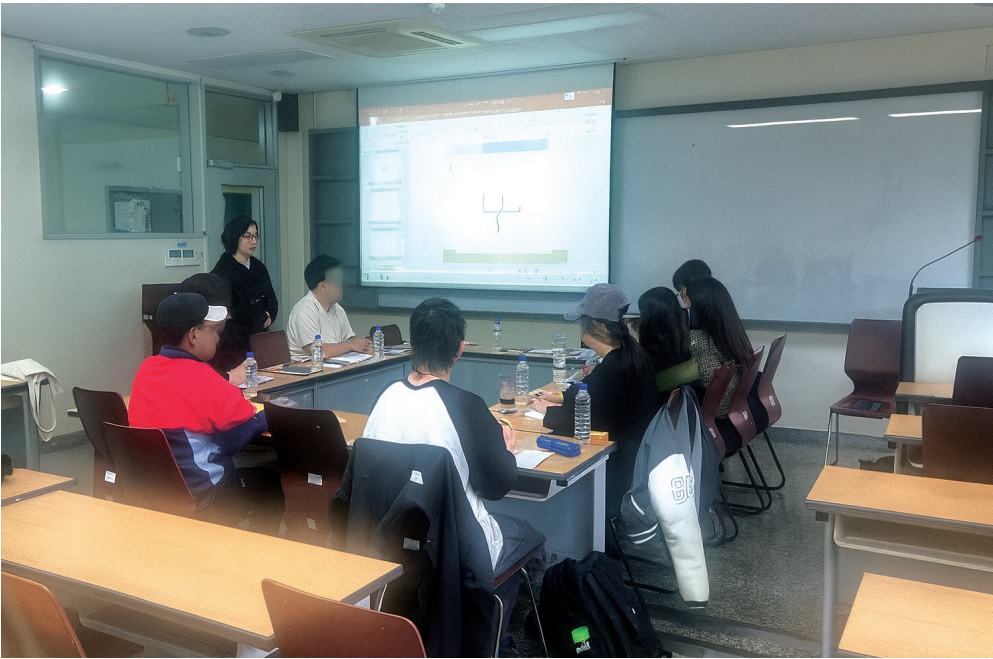
구분	대인관계기술 (사회성 지수)	스트레스관리 (스트레스 지수)	힐링액티브 (삶의 만족도 지수)	미루는 습관 바꾸기 (지연행동 지수)	시험불안 극복하기 (시험불안 지수)
사전	45.8%	28.3%	52.3%	82.0%	78.8%
사후	67.1%	6.7%	68.2%	51.3%	52.2%
차이	▲ 21.3%	▼ 21.6%	▲ 15.9%	▼ 30.7%	▼ 26.6%



집단상담 A



집단상담 B



집단상담 C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ARI멘토링의 힘



전혜림

안양대학교
교육역량강화센터
연구원

추진배경 및 목적

안양대학교 교육역량강화센터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ARI¹⁾멘토링은 선배(멘토) 후배(멘티)가 1:1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멘티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멘토의 학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유대감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영 방식 및 특징

ARI멘토링은 교육역량강화센터의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멘티의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자유전공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공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활동 부문을 신설, 자유전공 학생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단과대학별 멘토 매칭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발된 팀은 한 학기 동안 3차시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는데 매 차시마다 개인워크북을 작성하고 마지막 차시에는 팀 워크북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활동 전 설명회와 더불어 직전 학기의 우수 참여자 성과사례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및 학습케어’와도 연계하여 필요시 멘티의 학습과 관련한 고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ARI는 안양대학교의 교육 목적인 ‘아름다운 리더’의 약자를 말함

본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시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자유전공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워크북 작성용 학습 지원도구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운영성과

- ▶ 멘토의 리더십 및 멘티의 학교 적응력 강화
- ▶ 멘토-멘티 간의 지속적 유대감 형성으로 소속감 증대

▶ 참여 학생 수 및 만족도

분류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1학기
프로그램 참여 인원	160명	150명	80명
만족도점수(5.00만점)	4.67	4.68	4.72

- 참여자 만족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
- 2025-2학기: 70명 참여 중

▶ 참여 학생의 성적변화

분류	참여 전 평균 성적	참여 후 평균 성적	성적향상률
2023학년도	3.51	3.61	103%
2024학년도	3.66	3.71	101%

▶ 성적경고&학업부진 학생의 성적변화

분류	참여 전 평균 성적	참여 후 평균 성적	성적향상률
2023-1학기	0.72	2.96	411%
2023-2학기	1.55	2.97	192%
2024-2학기	0.86	2.12	247%
2025-1학기	1.29	2.38	184%

- ARI멘토링은 학습 동기 부여와 실질적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성적경고자 및 학업부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2024-1학기에는 ARI멘토링에 참여한 성적경고&학업부진 학생이 없었음.



나에게 멘토링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활동이다.

▮▮▮ 학생들의 참여후기

멘토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깊이 있는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특별한 활동이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성장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 멘토링을 통해 맺어진 인연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된다.

이러한 인연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한다.

결국, 멘토링은 새로운 인연을 맺고, 서로의 삶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것 같다.

- 금쪽이아님 멘토 김○○ -



나에게 멘토링은
대학교
입문서이다.

멘토링이라는 제목만 보았을 때는 딱딱하고 공부만 할까 봐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 저의 2024년 새내기의 1학기를 돌아 보았을 때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자!’ 주의여서 선배도 저도 의욕이 넘치고 일주일에 많게는 3~4번씩 만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활동 속에서 추억도 쌓고 친목도 다지며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멘토링을 통해 생겨서 마음이 든든해진 기분입니다.

선배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 수고하셨고 저랑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멘토링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니까!

- 셰익스피어 멘티 김○○ -

향후계획

ARI멘토링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 개인의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유전공 학생 대상 전공 체험 및 진로 탐색 강화와 정교한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멘토링 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RI멘토링 외에도 안양대학교 교육역량강화센터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과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학 생활 전반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함께 이루는 혁신, 그 시작은 사업의 성과관리로부터!



김선화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팀원

추진 배경과 필요성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재정 관리 차원을 넘어 교육 혁신과 신뢰성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사업이 단과대학과 부서 단위로 분산 운영되다 보니, 예산 불용액이 반복되거나 성과지표가 수기 관리 방식에 머무르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대학교는 실무협의회라는 추진체계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실행 도구를 결합한 새로운 운영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사업추진의 구심점

실무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실무차원 거버넌스의 중심이었습니다. 대학 본부 전 부서 교직원 참여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교직원·학생 수요조사 결과 공유, 부서별 성과달성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예산 조정 논의, 성과홍보 전략 등 사업단계와 시기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정책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면서 대학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실행을 뒷받침하는 도구

실무협의회가 운영 체계의 두뇌라면,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은 손과 발이었습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핵심 도구였습니다. 예산신청부터 변경, 승인, 정산, 결과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원화하는 한편, 예산 조정은 자동 산출로 반영하여 오류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실시간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 데이터를 근거로 즉각적인 조정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고, 유기적인 역할을 해낸 덕분에 사업비 집행률은 2022년 93.4%에서 2023년 98.3%, 2024년에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단순한 수치의 개선을 넘어, 투명성·효율성·성과 중심성을 모두 확보한 혁신이었습니다.

성과와 확산

실무협의회와 성과관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조선대학교는 성과평가에서 2023년 A등급, 2024년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율성과 지표 달성을 또한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136%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단순한 관리 혁신을 넘어, 대학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학생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교직원들의 행정 부담은 줄었으며, 대학 차원의 성과 공유와 홍보 활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시스템과 실무협의체 구성의 노하우는 학내 타 국고사업에도 확산 적용되고 있어 재정지원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국고사업 운영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 체계와 도구의 분리와 결합

: 협의회는 방향을 정하고, 시스템은 실행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실무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 FAQ, 시범 운영을 통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 적용 시 유의사항

: 대학마다 다른 예산 규정과 학사행정 시스템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우리 대학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타 재정지원사업에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타 재정지원사업 간의 연계방안 및 통합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환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맺음말

혁신은 협의와 참여, 그리고 공유에서 시작되며 데이터 기반 관리로 완성됩니다. 실무협의회와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한 결과,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제도화할 수 있었으며, 구성원들은 고등교육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 대학의 사업관리 운영에 실질적 지침이 되고, 함께 혁신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기능별 템플릿

시스템내 사업의 단계별, 기능별 개발 [총괄도]					
공간	구매	대금	발전기금	부서성과	사업
시설	실용실험비	예산	위원회	자산	재무/회계
주간보고서	총무	입학	홍보		
기초정보	예산	결과보고	지표	실적	
★ 사업코드	★ 국책사업교비대응금	★ 사업결과보고서입력	★ 지표설정	★ 사업실적보고서	
★ 지원기관	★ 사업예산일정	★ 사업결과보고서확인	★ 자율지표	★ 사업성과자세분석	
★ 최상위사업	★ 사업예산편성	★ 사업결과보고서결재	★ 자율지표조회		
★ 사업체계	★ 사업예산편성승인		★ 지표설정		
★ 사업비목	★ 사업예산변경		★ 지표달성		
★ 사업비상목	★ 사업예산변경승인				
	★ 사업예산변경결재				
	★ 사업예산				

사업-예산신청 메뉴 [세부 프로그램 단위 예산집행계획 신청/변경 -> 승인 -> 예산 자동 반영]

사업예산신청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25 | 승인사 | 승인사 | 승인사

예산액: 157 | 승인사: 1

순번	일련번호	사업명	담당자	신청액	승인액	승인일자	승인처	승인사	비고
11	202-1-1-1-1-1	100 자유분방한 시골 송년 행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12	202-1-1-1-2-2	101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13	202-1-1-1-3-3	102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14	202-1-1-1-4-4	103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15	202-1-1-1-5-5	104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사업예산내역

순번	일련번호	사업명	예산액	잔액	잔액비율	잔액비율%	잔액비율%
1	02	실용 기술 분야 및 기계계 구별 운영비	131,423	131,423	100%	100%	100%

예산액: 131,423 | 승인액: 131,423 | 승인일자: 2025-09-19 | 승인처: 승인처서 | 승인사: 승인사

사업예산신청 계획서

세부프로그램 1 HYPER 교육지원 | 사업목적: 005 | 사업명: 005 | 사업기간: 2025-09-19 ~ 2025-09-19

주요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예산액: 131,423 | 승인액: 131,423 | 승인일자: 2025-09-19 | 승인처: 승인처서 | 승인사: 승인사

사업-사업결과보고 [세부 프로그램 단위 사업집행실적, 지표달성결과, 정성실적 등의 자료 탑재]

사업결과보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25 | 승인사 | 승인사 | 승인사

예산액: 157 | 승인사: 1

순번	일련번호	사업명	담당자	신청액	승인액	승인일자	승인처	승인사	비고
43	100	100 자유분방한 시골 송년 행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44	101	101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45	102	102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46	103	103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47	104	104 유망직업도 품앗이 캠페인 참여	박지현	100,000	100,000	2025-09-19	승인처서	승인사	

사업예산내역

순번	일련번호	사업명	예산액	잔액	잔액비율	잔액비율%	잔액비율%
1	02	실용 기술 분야 및 기계계 구별 운영비	131,423	131,423	100%	100%	100%
2	03	교육지원 사업 예산	400,000	400,000	100%	100%	100%
3	04	교육지원 사업 예산	22,000,000	22,000,000	100%	100%	100%
4	05	교육지원 사업 예산	4,000,000	4,000,000	100%	100%	100%

사업-사업성과 차트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을 시기별, 점검 차수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사업성과 차트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25 | 승인사 | 승인사 | 승인사

성과지표 달성현황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성과 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차트

성과지표 달성현황 차트

성과지표 달성현황 차트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교육수요 기반의 다관점 전공교육과정 평가·인증



이현주

청주대학교
교육과정인증센터
연구원

추진 배경 및 목적

대학 교육의 본질적 목표는 사회적·학문적·산업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공 분야의 문제 해결력과 진로 적응력을 높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이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경력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청주대학교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실현과 학과(전공)별로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및 진로 기반 전공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요구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자체 전공교육과정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운영 내용

전공교육과정인증제도는 학과(전공)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한 교육 전략을 기반으로,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및 환류 과정을 평가하여 개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대학 차원에서 우수학과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교육 수월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청주대학교 전공교육과정인증제도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촉진하는 절차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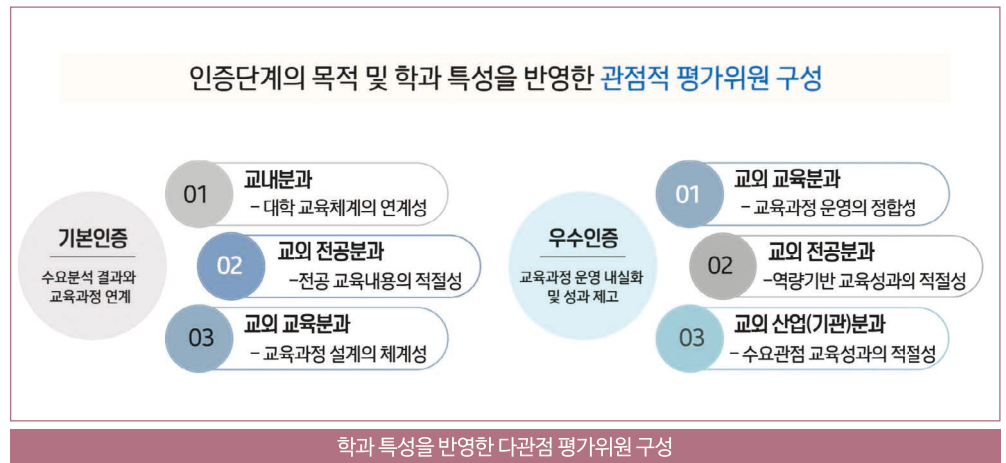
본 제도는 역량 및 진로 기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기본인증과 우수인증의 2단계로 운영된다.

기본인증은 환경분석 -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 개발 단계를 다루며, 교육과정이 적절하게 설계·개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우수인증은 교육과정 운영 - 교육성과 - 교육과정 환류 단계를 중심으로, 운영의 정합성과 성과 및 환류 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전공교육과정인증제도는 교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학문적·산업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다각도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공, 산업(기관), 교육 관점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학과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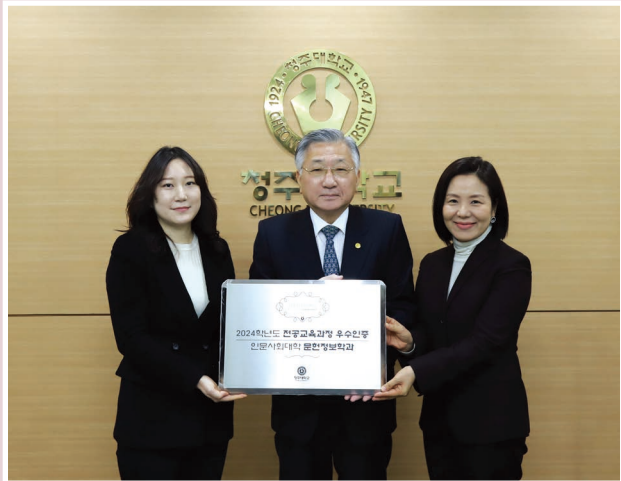
기본인증 단계에서는 교내 계열별 평가위원이 대학 교육체계와 전공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평가하고, 교외 전공분과 평가위원이 전공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교외 교육분과 평가위원이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성과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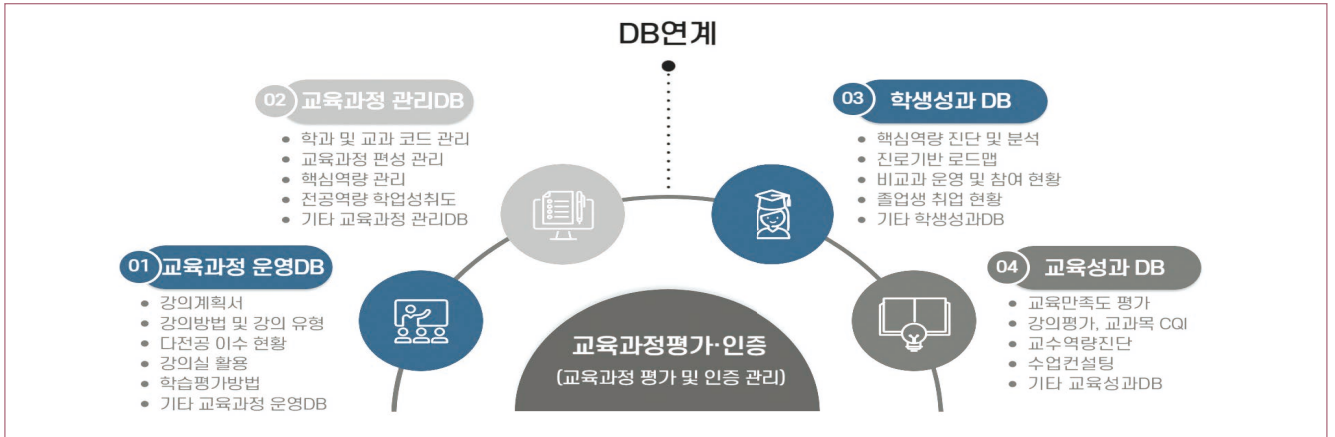
청주대학교 전공교육과정인증제도는 단순한 교육과정 평가를 넘어, 학과 교육과정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하는 지속 가능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학과는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선·개편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학은 학문적 정체성과 사회적 수요를 동시에 반영하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확립하였다.

특히, 인증제도 기반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다. 또한 2022학년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현재까지, 외부 인증 학과(3개)와 신설학과(2개)를 제외한 전 학과(49개)가 인증에 참여함으로써 대학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 질 보장 체계를 정착시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중 3개 학과(연극학과, 문헌정보학과, 아트앤패션디자인학과)는 교육과정 전반의 운영 및 성과가 높게 평가되어 우수인증을 부여 받았다.



우수인증학과 현판 수여식

아울러, 포털시스템(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에델바이스·CAIR시스템(성과 관리)의 데이터를 연계한 전공교육과정 평가·인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운영 및 성과 데이터의 통합적 연동, 보고서 작성, 평가 지원, 인증 관리가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과에는 보고서 작성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대학에는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청주대학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전공교육과정 평가·인증시스템 체계

전공교육과정 평가·인증시스템 체계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전공교육과정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본교는 대학 교육의 상향평준화와 종합적 질 제고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을 보장하며, 나아가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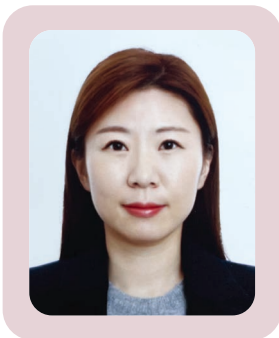
특히 학문 분야별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우수학과 발굴과 교육과정 성과 공유를 통해 대학 교육의 수월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또한, 인증주기 설정과 평가지표 고도화를 통해 학과가 주기적인 질 개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향후 청주대학교는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체제를 더욱 확립하여, 전공 교육과정이 시대적 요구와 사회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성과 제고 및 질 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학과 경쟁력은 물론 대학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 동대문구 외대쌤 영어브릿지



강미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
과장

개요

1) 동대문구 “외대쌤 영어브릿지” 프로그램이란?

▶ 동대문구 초등 5~6학년생이 중등 영어 교육과정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학 중 집중과정

[1단계] 동대문구청 지원으로 한국외대에서 교수법, 교안, 워크북(초중등 교원 협력) 연구개발

[2단계] 한국외대 재학생 교사단 “외대쌤”이 전문교육을 거쳐 집중 영어 수업 진행

- 교재: 킷출판사 “구문이 독해다1(예비중~중1)” / 교안 및 워크북: 한국외대 자체 개발

- 학생: 반별 최대 15명 / 강의장소: 한국외대 포함 동대문구 내 10곳

2) “외대쌤” 적격자는?

▶ [필수] 영어교육, 교수법에 관심을 갖고 실제 수업 현장 경험과 감각을 키우고자 하는 학부 재학+휴학생

▶ [우대] 영어대학 제1전공, 영어교육 제1/이중전공, 신입생 영어진단 우수자, 공인어학시험점수 보유자

▶ [혜택] 강사비, 수업자료보조비, 활동지원금, 개별/그룹 교수법 컨설팅

운영내용

1) 2025. 2. 5.

한국외대-동대문구청 “학습 전환기 대비 영어 교육프로그램”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관내 학생 및 학부모의 영어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양기관의 자원과 교육 노하우 공유 및 협력



한국외대-동대문구 협약식

2) 2025. 3.17.

동대문구청-한국외대 2025 동대문구 영어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용역 계약 체결

- 관내 초등학생의 중등 영어 학습 전환기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외대쌤” 재학생 교사단 선발·관리를 바탕으로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2025. 4. 23.

한국외대-키 출판사 「2025 동대문구 영어방과후 프로그램」 교재 저작권 활용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 동대문구 외대쌤 영어브릿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키출판사의 '구문이 독해다' 시리즈 도서의 저작권 활용을 무상으로 허용

4) 2025. 6. 23.

동대문구 외대쌤 영어브릿지 수강생 119명 접수

- 신청 접수 조기 마감, 강의장소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

5) 2025. 6. 26.

한국외대 재학생 교사단 1기 외대쌤 10명 선발

- HUFSAbility(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템) 통해 공지 및 접수
- 접수기간 내 두 차례 신청 제한 증원 후 조기 마감, 경쟁률 8:1 기록



외대쌤 사전교육



외대쌤 개강일

6) 2025. 7. 7.

한국외대 2025 동대문구 외대쌤 영어브릿지 교안 및 워크북 개발 완료

- 한국외대 전문 연구진 및 초중등 교사 자문단 협력
- 에듀테크 활용한 자기주도적 교수-학습법 적용

한국외대 자체 개발 교안
(강사용)



한국외대 자체 개발 워크북
(학생용)

7) 2025. 7. 14. ~ 8. 14.
 2025 하계 동대문구 외대쌤 영어브릿지 세부 진행 일정

사전교육 7.14.	외대쌤 영어브릿지 수업 진행 8.1. ~ 8.14. 80분/일 x 10일				최종 보고회 및 수료식 8.20.	우수 외대쌤 표창 9.25.			
교안, 워크북,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 교육	전반부 수업관찰 (개별)	▶	중간 워크숍 (그룹)	▶	후반부 수업관찰 (개별)	▶	결과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발표 수료증(교육혁신원장) 강사경력증명서 (동대문구청장) 	우수 외대쌤 표창 (동대문구청장)



외대쌤 수료식



동대문구청장 명의 우수 표창

기대효과

1) 실무형 교육 역량 강화

: 교수법, 교안 및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진행 등 전 과정을 통해 영어교육 현장 경험과 교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

2)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 지역 아동 교육 지원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

3) 교육전문성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교사 및 영어교육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학생에게 실질적 수업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향후 운영 계획

2025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안 및 심화 교육자료 추가 개발 에듀테크의 안정적 활용을 위하여 MS Teams 업무 협조 추진 동계방학 외대쌤 영어브릿지 운영 규모 확대: 수준별 수업 운영 및 수강규모 증원
2026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기중 방과후 수업으로 확장 운영
2026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재학생 외대쌤 및 일반 강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7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대문구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전문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크 활용한 초·중등 방과후 영어 커리큘럼 개발 - 방과후 영어교사 대상 교수법 전문 교육 정기 시행 - 관내 초·중등학생 영어학습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시행

외대쌤 후기

“대학에서 배운 교수법, 아이들 눈높이로 실천하며 함께 성장”

이은석 외대쌤(한국외대 중국어교육과/영어교육 이중전공, 3학년)

“영어교육 수업시간에 배웠던 교수법들을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고,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현장 대처 능력과 나만의 수업 스타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래 교사로서 실력과 자신감이 모두 성장,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자부심을 느꼈다.”



외대쌤 수업현장(이은석 외대쌤)

“친구들과 함께한 외대 영어 수업, 자신감이 쑥쑥”

신비아 수강생(동대문구 거주 초등 6학년)

“중학교 영어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어렵고 이해가 쑥쑥 돼요! 선생님도 친절하고 재미있었고, 나눠주신 문제집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영어 학원에 따로 다니지 않고 있는데 중학교 가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대문구청장 수업 참관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SL 장기프로젝트 - Social Impact 학생 주도의 사회문제 탐구-항해-개척 도전기



안진성

한남대학교
서비스러닝센터
조교수

▮▮ SL장기프로젝트-Social Impact 이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한남대학교는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실행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SL 장기프로젝트-Social Impact’를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학생의 다학기 연속 참여를 전제로 한 장기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 SL장기프로젝트-Social Impact 운영은?

본 프로그램은 Design Thinking Process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첫 학기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공감(Empathize)’과 ‘문제 정의(Define)’에 집중하는 [Social Diver] 단계를 진행한다.

이 단계의 결과는 매학기 발표회를 통해 평가되며, 이후 단계 진입 여부를 심사한다.

다음 학기부터는 도출된 해결방안을 실행하고, ‘시행착오(Trial & Error)’를 통해 이를 고도화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항해] 단계인 [Social Navigator]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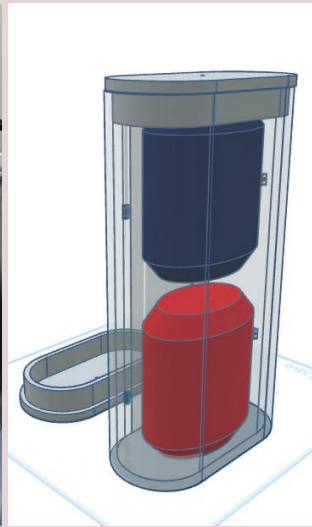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천적 학습경험을 축적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척]해 나가는 인재 [Social Pioneer]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SL장기프로젝트-Social Impact 성과!

Social Diver : 팀 SAFE - STF (투척용 버블폼 소화기 개발)



액체 소화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버블폼 소화제 개발 실험



STF 외피 Prototype 렌더링



STF 외피의 Prototype

SAFE-STF는 화재 초기 진화를 목표로 하는 투척형 버블폼 소화기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탄산수소나트륨, 황산알루미늄, 글리세롤의 혼합과 수산화알루미늄, 황산나트륨, 이산화탄소 혼합물의 화학물질 산-염기 반응, CO₂ 발생 → 거품 형성, Al(OH)₃ 겔 + 글리세롤 → 거품 안정화라는 다중 화학반응 기반의 버블폼 소화제를 개발하였다. 또한 투척시 두 물질이 혼합 될 수 있는 타원형 충격반응 외피를 설계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즉각 대응형 장비로 개발하여 화재피해의 최소화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음 학기에는 Social Navigator로서 실종자 탐색&매칭 시스템 정교화, 초상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검토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Team 심도는 실시간 실종자 탐지 및 신속 구조 지원을 목표로 하는 AI 기반의 CCTV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첫 학기에는 Yolo 모델과 GPT Vision API 등을 활용한 비교과정을 통해 객체 탐지 기술을 개발하였고,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자 외의 객체 모자이크 처리했다.

다음 학기에는 Social Navigator로서 탐지 기술/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의 고도화, 초상권 침해 관련 법적 자문을 진행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자문을 통해 실증 테스트,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 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Social Navigator I : 팀 IGONG (병충해 진단드론 개발)



드론 제작



드론 방역



결과발표회 시상

본 프로그램에 2학기째 참여하고 있는 Social Navigator 팀 IGONG은 Yolo AI인식기술을 결합한 병충해 진단-드론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드론방제의 과도한 농약 남용을 줄이는데 목적을 둔 개발 프로젝트이다. 드론 방제 현장에서 팀 리더가 직접 경험한 드론 농약 남용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인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제초제 오살포 사고, 심각한 농약 남용 등이 프로젝트의 발단이 되었다.

자체 제작한 MK I, II, III 드론 플랫폼에 드론의 실시간 영상 촬영 기술을 탑재하고, YOLOv11 기반의 병해충 인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방역 필요 구역 분석, 데이터 관리를 통한 농업 전 과정의 효율화를 돕는 통합방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8월 초에 진단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를 진행하였고, 다음 학기(3학기째)에는 이에 대한 성과 데이터(농약 사용 감소량과 농산물 수확량)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AI와 창의성의 만남, 한성대학교 '글로벌 한성포럼' 개최



김지현

한성대학교
글로벌협력처
처장



추진배경

한성대학교는 제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대학들과 함께 디자인·패션 등 창조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글로벌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기획 중이다. 이러한 비전 아래, 한성대는 올해 9월 일본,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5개국 6개 대학과 함께 '글로벌 한성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위한 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했다.

프로그램 개요

올해 '글로벌 한성포럼'은 '인공지능과 창의성(AI & Creativity):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시를 바탕으로 한 융합적 미래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의 전 과정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 실시간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AI 기반 통역 시스템이 적용되어, 언어 장벽을 넘어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조 발표가 진행되었다.

- 전준현(한성대 교수): 효과적인 명령 프롬프팅
- 웨이카이(CAICT AI연구소장): 중국 AI 산업 현황과 글로벌 한중 협력 활성화
- 양수란(베이징대 창업훈련캠프 부센터장): AI 시대 창업생태계와 한성대와의 시너지 창출 방안

오후 세션에서는 한성대와 일본 니혼대학, 홋카이도교육대학, 국립대만예술대학, 태국 부라파대학, 싱가포르 폴리텍 등 각 대학들이 AI와 예술·디자인·교육 혁신을 융합한 사례를 공유하며 창의적 접근 방식과 교육적 통찰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와 창의교육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참여 대학들은 'AI 활용 공동 디자인교육과정 개발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시아 5개국 6개 대학이 참여한 <AI+ 국제학생교류전>

포럼과 연계하여 개최된 'AI+ 국제학생교류전'은 학생 중심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실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였다.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5개국 6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AI와 예술·디자인을 융합한 약 130점의 그래픽 및 영상 작품들이 전시됐다.



〈AI+ 국제학생교류전〉에 참가한 학생의 발표 모습

추진성과

이번 ‘글로벌 한성 포럼’에서는 한성대학교를 비롯해 일본 니혼대학, 홋카이도교육대학, 국립대만예술대학, 태국 부라파대학, 싱가포르 폴리텍 등 6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SI 활용 공동 디자인교육과정 개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SI와 신기술, 창의 교육, 교육 방법론 분야에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참가 대학 간의 학술 협력, 문화 교류 및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성대학교와 글로벌 대학들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SI와 창의기술을 중심으로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

이번 ‘SI 활용 공동 디자인교육과정 개발 협약’을 통해 한성대학교를 포함한 6개 대학들은 SI 및 창의기술 분야의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5개국 6개 대학의 'AI 활용 공동 디자인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약체결 모습

첫째, AI와 창의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동 마이크로 디그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동 워크숍, 전시회, 학술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창의적 결과물을 공유하고, 학문적·실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실질적인 학술 성과 도출을 위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대학 간 융합과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넷째, 인턴십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다섯째, 학생 및 교수진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대학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대학 간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와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유연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학생이 직접 만든 차세대 학사정보시스템, 그 여정의 기록 건국대학교 KUSD(학생개발팀)



정지원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건국대학교 학생개발팀(KUSD) 활동에 참여하여 차세대 학사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사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게 된 계기와 목표, 실제 개발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성취,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개발팀 단체사진

▣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목표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사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기능 자체는 충실했지만, 데스크톱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모바일로 접근했을 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거나 학사 공지를 보려 할 때마다 화면이 깨지거나 메뉴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UI/UX를 우리가 직접 개선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옮겨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직관적이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 개발 과정에서의 도전과 경험

학생개발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기획, 디자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 서버 배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팀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조금씩 윤곽을 잡아갔습니다.

저희는 먼저 실제 학생들이 학사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능 및 현재 학사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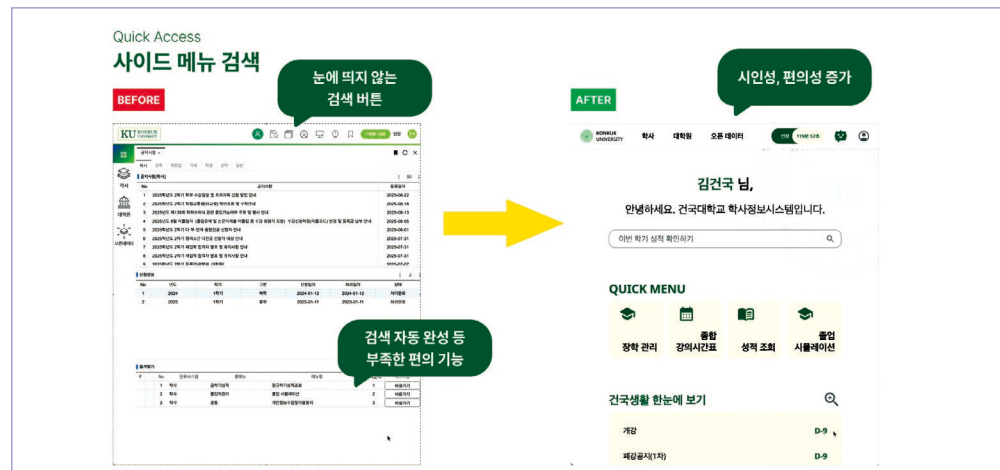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5가지의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프로젝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개발 파트를 맡은 저는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조회하는 기능인 강의시간표나 성적 조회의 경우, 방대한 정보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했기에 가독성을 높이는 반응형 컴포넌트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학사정보는 단순 조회가 아니라 졸업 시뮬레이션, 성적·장학 정보, 강의계획서 열람 등 다양한 기능이 얹혀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많은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팀원들과 매주 회의를 이어가며 요구사항을 정리했고, 실제 학사시스템을 운영 중인 정보운영팀의 피드백을 적용하며 UI를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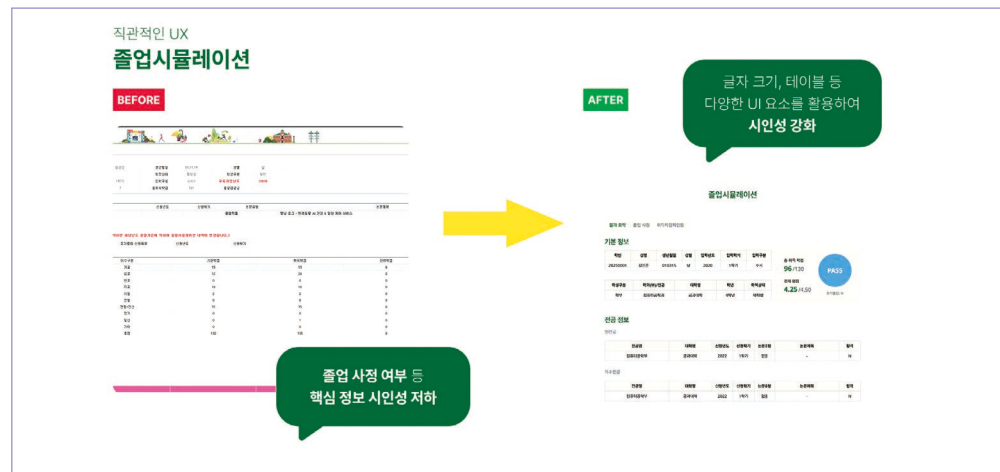
기억에 남는 기능과 개선 포인트

특히 인상 깊었던 기능은 졸업시물레이션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단순히 이수 학점만 나열해주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이 졸업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이드메뉴 검색

저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 조회 중심의 UI를 넘어 졸업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요약해 보여주는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교양 필수 학점 이수 여부, 졸업 논문 또는 영어 인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현재 졸업 가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졸업 시물레이션

이 과정에서 단순히 보기 좋은 화면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학사 데이터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 및 제공되는 과정을 직접 설계해 본 경험이 큰 도전이자 성취였습니다.

▣ 개발을 마치며 느낀 점

보고회에서 저희 팀이 만든 프로토타입을 직접 시연했을 때, 학사팀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경험을 넘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기획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출발점으로 삼아, 설계부터 구현, 배포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기에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학생개발팀 보고회 발표 현장

또한 팀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소통과 조율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개선점이 건국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차세대 사업에 반영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경험이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운 값진 기회였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맡더라도 사용자 중심의 관점을 잊지 않는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국제 사진 교류 프로그램 'Photographing London' 참여 후기



홍도은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학생

▮ 참여를 결심하기까지

저는 마흔이 넘는 나이에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3학년으로 편입하며 배움의 길에 들어섰지만, 또래보다 늦은 출발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혹은 길이 옳은 선택일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 영국 Westminster University에서 진행되는 Photographing London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망설임 끝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사진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루시스터 교수가 런던 탑(Tower of London)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전 준비, 대구와 런던을 잇다

영국에 가기 전, 7월 초 Photographing Daegu 사전 프로그램(총 3회차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익숙한 도시 대구를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며 촬영하는 과정은, 런던에서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다가올 2주간의 일정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 매일 꿈같이 이어진 촬영과 몰입

런던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시차 적응이나 환경의 낯섦보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걷는 설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게 사진 속 이미지로만 존재 하던 공간이었는데, 직접 발로 걸으며 기록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몰입하게 하였습니다.

매일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촬영과 리뷰가 반복되었습니다. 박물관과 갤러리, 시장과 주택가, 강변과 교외의 풍경까지, 도시 전체가 제 수업 현장이자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카메라를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하루의 첫 빛을 맞으며 도시를 걸었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런던에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서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시장의 활기, 강변의 빛과 그림자, 좁은 골목길의 정적, 공원과 거리의 모습과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들이 제 사진첩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 레전드들을 만나다

Westminster University에서의 배움은 제 작업에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Lucy Soutter 교수(『왜 예술 사진인가』의 저자)와 David Bate 교수(『사진의 주요 개념』의 저자)는 동시대 예술사진의 거장으로, 강의와 리뷰 세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사진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읽히는가?”, “동시대 사진 담론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와 같은 물음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진을 기술이 아닌 사유의 언어로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제 시야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총 11회차의 강의를 통해 현대사진의 개념 학습 뿐 아니라, 개인 작업의 프린트 퀄리티 관리, 런던의 역사 유적 및 도시구성과 관련한 시공간의 개념 탐구, 작품 전시회 관람과 작가와의 대화를 통한 동시대 사진작업의 의미 고찰, 포토몽타주와 소책자 제작, 전시기획 및 세팅을 배우고 직접 전시까지 이어나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홍도는, 『무제』, 2025, 영국 런던 Harrow Church 에서 촬영

▮▮ 런던을 넘어 브리스틀과 리버풀까지

이번 프로그램은 런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개인 시간에 브리스틀에 있는 Martin Parr Foundation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작가 마틴 파의 작업과 아카이브가 보관된 공간은,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거장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포토북과 전시, 자료들이 주는 생생한 감각은 책이나 화면으로 접할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를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일정 중 지도교수이신 김신욱 교수님과 함께 리버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양의 포토북을 운반하는 여정에서 도시가 가진 또 다른 예술적 풍경과 다른 풍경의 삶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도시를 오간 여행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였고, 저의 사진 공부와 작업 세계를 더 넓혀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뜻깊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

프로그램의 마지막 며칠은 각자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찍은 사진들을 선별하고, 그 속에 흐르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제 작업은 런던 현지에서의 작은 전시와 함께 간행물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술의 중심지라 불리는 런던에서 제 사진이 전시되고 책으로 엮이는 순간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경험이 단순히 소멸하지 않고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경일대학교 김신욱 교수와 웨스트민스터 루시 수터 교수가 학생 작품 전시를 지도하고 있다.

▮ 나를 변화시킨 여정

귀국 후, 런던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국내에서 ‘겹쳐진 자리’ 전시로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 경험한 촬영과 전시가 한국의 전시장으로 확장되며 관람객과 다시 만났을 때, 사진이 가진 힘과 확장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제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 속에서도 나아간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였고,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장소와 기억,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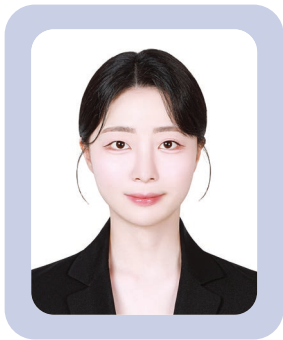


“겹쳐진 자리” 전시 포스터

학생사례

Student case

2025학년도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UROP) 참여 후기 공유



한희진

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

국민대학교의 UROP 프로그램은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Program의 약자로 연구 참여 및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수 연구프로젝트 또는 팀 단위 프로젝트에 참여시킴으로써 학부생의 전공 창의성을 개발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운영되며 매학기 인문·자연·예체능계열 전반에 걸쳐 36~38개팀이 꾸준히 지원하여 참여하고 있다.

▮ (질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평소에 차세대 항공우주와 UAM 플랫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우주선으로 택배를 배송 받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직접 연구 경험을 쌓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UROP 프로그램이 그 기회를 제공한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 장래에 연구자의 길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세미나 중인 모습

▣ (질문)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나요?

저는 6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나와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서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던 재사용 무인 우주 비행체의 궤도이탈 및 재진입 관련 과제를 주셨고, 연구의 시작은 문헌조사였습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찾아 어떤 기법들이 활용되었는지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convex optimization을 활용한 궤도이탈·재진입 코드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헌에서 다루어진 여러 접근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기법으로 연구를 확장할지에 대한 방향성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비행역학과 무인체계 고급제어 과목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며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을 매주 교수님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향후 task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질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실제 연구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코드와 문헌을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매일 모여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모습, 웨도이탈 동역학 식 유도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연구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했지만, 점차 연구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정하고 확장해 나가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역학과 제어 이론 같은 전공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해보면서 학문적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업의 중요성과 연구를 즐기는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이 앞으로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 또는 추천해주세요.

UROP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학 활동이 아니라, 실제 연구자가 되어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탐구하면서 전공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해볼 수 있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연구 경험이 많지 않은 학부생들에게는 '연구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자, 대학원 진학이나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매일 꾸준히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라면 꼭 참여해보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보다, 연구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값진 경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 프로그램 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UROP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연구자가 된 것처럼 몰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진로와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부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부생들이 대학원에 대한 진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 대학원을 체험할 수 있는 UROP같은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성과를 학회·발표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학생들의 참여 동기와 성취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질문)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내용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체계적인 문헌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논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연구 과제의 흐름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최적화 기법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비교·학습하면서, 제어 시스템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무인체계고급제어와 비행역학을 함께 학습하며 연구의 기반 지식을 다졌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코드 분석과 연결하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연구 주제에 적용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궤도이탈과 재진입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convex optimization 기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과 접근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법을 선택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차원을 넘어 실제 연구자가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심화된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함께하며 깊이 있게 전달하는 새로운 독서 방식 독서 PT 경연대회



이유립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학생

‘독서 PT 경연대회’는 동의대학교 재학생들의 독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 나아가 창의적 학습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책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타인과 생각을 나누는 활동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발표를 통해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발표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고통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을 말하고 침묵에 맞서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중심으로 발표 주제를 정했고, 팀명은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로 지었습니다. 이는 책 속에 담긴 역사적 아픔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을 이어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 『소년이 온다』로 하나 된 우리, 그리고 수상 순간

『소년이 온다』의 메시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희 팀은 연극 형식의 발표를 기획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대사와 실제 생존자의 인터뷰를 결합해,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을 감정적으로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발표 구성, 시각 자료 제작, 연기 연습까지 모든 과정을 팀원들과 협력하며 완성도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종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총장상을 받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은 수상 자체보다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독서 PT 경연대회 현장 모습

책에서 무대로, 소년의 이야기를 담다

이번 독서 PT 경연대회는 단순한 발표를 넘어선,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책을 깊이 읽고, 팀원들과 작품 속 주제 의식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교과서나 영상 매체로만 접했던 역사였지만, 『소년이 온다』 속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들의 감정과 고통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는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연습했고, 발표 당일 관객의 반응을 통해 문학이 가진 감정적 울림과 사회적 메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독서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힘 있는 활동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생각을 나누며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를 지닌 학습자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학생이 독서를 통해 성장과 협력, 창의의 가치를 경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서 PT 경연대회 시상식

학생사례

Student case

AI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S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완학습"



정지원

삼육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학생

서론

삼육대학교는 다전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학교입니다. 저 또한 본 전공은 인공지능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계열이지만, 올해부터 복수전공으로 화학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수전공을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화학을 깊게 배우지 않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계 남아 있는 화학 관련 지식은 고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 화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컸습니다.

그때, 본교 기획처 IR센터에서 새롭게 개발한 인공지능 학습도구, 'SI기반 기초학력 진단 & 보완학습' 프로그램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부족한 부분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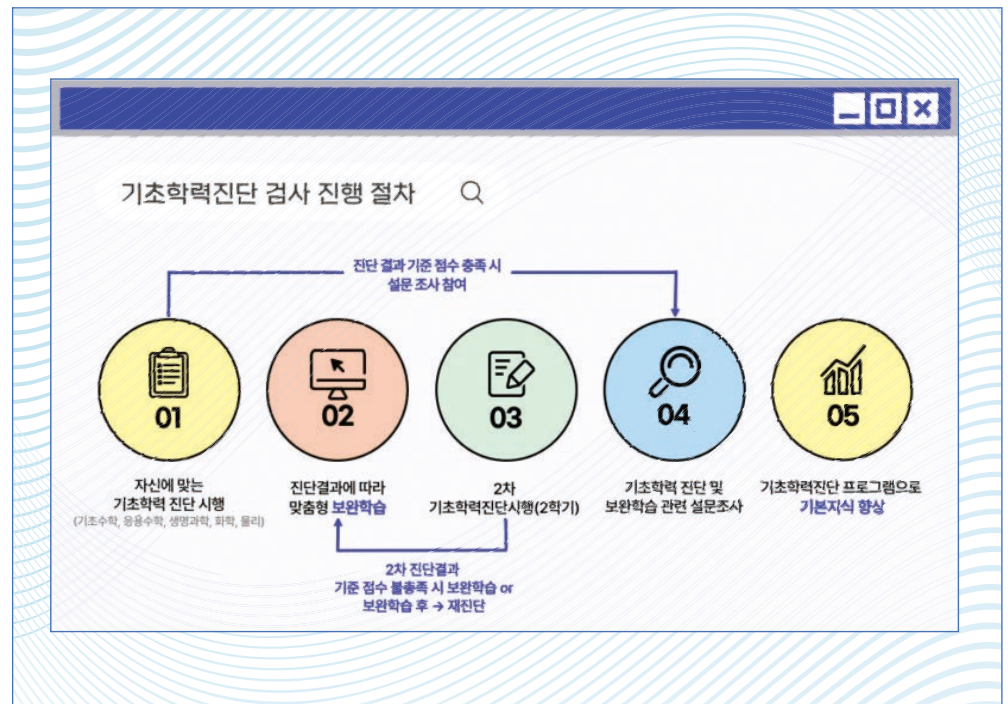
시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완학습 프로그램은 폴리캠퍼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진단평가는 기초수학, 응용수학(미적분·확률과 통계), 과학기초, 화학, 물리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이에 응시해 현재 수준을 진단받고, 결과에 따른 시기반 맞춤형 보완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 안에는 ‘학습자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토익, 의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화면 오른쪽의 AI 튜터 ‘폴링이’에게 질문해 즉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관련 동영상이나 참고자료까지 제공되어 혼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체험 후기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파일럿 테스트와 실제 운영 단계 두 가지 모두에 참여했습니다.

시중에는 중·고등학생이나 입시생을 위한 문제 제공 사이트는 많지만, 대학 수준의 문제를 다루는 플랫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진단 도구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 부족한 영역의 학습자료와 연습 문제까지 지원해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자격증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료실에는 다양한 과목의 학습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토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했는데, 시의 맞춤형 피드백과 자료 덕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시중의 여러 대화형 AI들은 대부분 무료 이용량에 제한이 있고, 그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과제와 시험 준비를 위해 다양한 AI 도구를 유료로 사용해 본 적이 있으나 대학생 입장에서 매달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AI 튜터 ‘폴링이’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GPT 기반으로 제작된 이 도구는 대학 수준의 지식까지 설명이 가능해 전공 과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교 재학생이라는 신분 하나로 무료로, 그리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었고, 제 수준에 맞는 공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맺으며

삼육대학교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재학생 홍보단 SU-PANEL로 활동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완학습은 개인 맞춤형 지속적 학업 지원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 또한 장려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공부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도구를 넘어, 다른 분야로서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문제에서 답을 찾다, 그리고 확신으로 전주대학교 진로 해시태그, 흔들림을 성장으로 바꾸다



김영은
 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

진로 해시태그란?

진로 해시태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진로를 고민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수행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9주 동안 진행되며,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탐구를 이어갑니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보고서와 발표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무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과정 중간에 있는 중간평가와 마지막 최종 발표회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활동지원금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최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는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전공 및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나아가 진로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의하고,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는 경험 자체가 핵심 가치입니다.

2025-1학기 진로 해시태그 프로그램

진로탐색

- 진로탐색 1차 (3월 3일 ~ 3월 10일)
- 진로탐색 2차 (3월 11일 ~ 3월 17일)
- 진로탐색 3차 (3월 18일 ~ 3월 24일)
- 진로탐색 4차 (3월 25일 ~ 3월 31일)
- 진로탐색 5차 (4월 1일 ~ 4월 7일)
- 진로탐색 6차 (4월 8일 ~ 4월 14일)
- 진로탐색 7차 (4월 15일 ~ 4월 21일)
- 진로탐색 8차 (4월 22일 ~ 4월 28일)
- 진로탐색 9차 (4월 29일 ~ 5월 5일)

진로탐색 1차

- 진로탐색 1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1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1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1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1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2차

- 진로탐색 2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2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2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2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2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3차

- 진로탐색 3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3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3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3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3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4차

- 진로탐색 4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4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4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4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4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5차

- 진로탐색 5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5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5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5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5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6차

- 진로탐색 6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6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6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6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6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7차

- 진로탐색 7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7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7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7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7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8차

- 진로탐색 8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8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8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8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8차 주제 발표

진로탐색 9차

- 진로탐색 9차 주제 선정
- 진로탐색 9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9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9차 주제 발표
- 진로탐색 9차 주제 발표

진로 해시태그 포스터

▣ 참여 계기

저는 지난 학기,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한 진로 해시태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는 솔직히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진로 해시태그 프로그램을 다수 참여했었으나, 팀장이라는 역할은 처음 맡게 되면서 기대보다는 부담이 앞섰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내가 과연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팀원들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불확실성이 따라왔기에 시작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공감대가 형성되자, 막연했던 두려움은 점차 우리의 첫 성과를 내겠다는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프로그램 활동

우리 팀이 선택한 주제는 전공을 살린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한 시간표 앱 제작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흔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시간표를 제작해주는 어플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학 강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매 학기 직접 강의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기에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요일이 여러 번 겹치는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표시하기도 불편했고, 비슷한 이름의 과목이 중복되면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같은 불편을 겪어왔기에, 또한 프로젝트가 제 진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는 도전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활동 중간에는 현직 개발자와의 멘토링과 기업 방문을 통해 실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제 개발 과정과 조직 내 협업 방식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경험은, 단순한 교내 활동을 넘어 실무와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쳤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서니 전공 이론 과목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기능이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를 붙잡아봐도 진전이 없을 때는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몇 시간째 똑같은 오류만 바라보고 있자니 지치고 답답해져 혼자 속으로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고민해주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막혔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은 문제라도 해결되면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작은 성과를 공유하는 순간들이 모여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소중한 동기들, 팀원들과 함께라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로 해시태그 활동모습

▮ 활동 성과

프로젝트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기능들이 하나둘 작동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우리가 구상한 모습이 구현될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앱을 만들었다는 설명이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했던 출발점, 시행착오 속에서 배운 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과정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팀 이름이 '대상'으로 불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을 받던 순간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실제 사용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타이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우리 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주제 선정이 학생들의 실제 요구와 잘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비록 활동은 대상 수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상금은 앱의 추가 개발 비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의 끝이 아니라, 제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상 수상과 후속 개발로 이어진 경험은 이번 활동이 일회성 성과가 아닌, 제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진로 해시태그 활동모습

느낀 점

또한 이번 활동은 제 진로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막연히 ‘앞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진로 해시태그 활동을 통해 실제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공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진로 해시태그 활동의 지원을 받으며 실무에 계신 분과 멘토링도 진행하였고, 수업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실무 관련한 문제를 풀어 보며 해결법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끈기, 사람들과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경험은 항상 진로에 대해 고민했던 저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상에서 도전하며, 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싶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창업가로의 도전, TU-KCC 창업동아리에서 찾은 나의 성장 이야기



이자명

한국공학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전공
학생

4학년이 되면서 반도체 전공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구체화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저에게 교수님은 TU-VCC 창업동아리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창업의 길은 낯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얻으며 창업가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즈랩 창업 공간 지원'과 '중간 성과 캠프'는 저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비즈랩'

먼저 '비즈랩 창업 공간 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회의실과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저와 팀원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 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의할 장소도 부족했고,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둘 공간도 없어 진전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디어는 더욱 구체화되었고, 발표를 통해 저 스스로도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간 지원 이상의 값진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비즈랩 공간 전경

▣ 더 넓은 창업의 세계로 인도해 준 ‘중간 성과 캠프’

가장 인상 깊었던 또 하나의 활동은 지난 8월에 다녀온 ‘창업동아리 중간 성과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1박 2일 동안 시흥시 거북섬에서 진행되어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합숙 속에서 다양한 창업팀들과 교류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은 창업을 막 시작한 저에게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IT 서비스 기획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특별 강리가 마련되어 창업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협동 게임과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팀원들과 친밀해지고, 서로의 창업 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과 멘토님들께서 직접 피드백을 주시며 창업가로서 필요한 태도와 준비 과정을 짚어주신 점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어진 과제는 ‘거북섬 지역 문제를 대학생의 아이디어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지역 방문객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며 청년들의 취업난, 비용 부담, 계절 의존적인 관광 구조와 교통 인프라 부족을 핵심 문제로 도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과 여행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팀원 모두가 진심을 담아 고민하며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아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 서서 열정을 다해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냈고, 창업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한 단계 성장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는 전공 지식에만 머물러 있던 사고를 넘어, 창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을 희망하는 또래들과 함께하면서 비슷한 열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소중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는 창업가로서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창업 아이디어에 다양한 관점을 접목할 수 있었던 경험은, 교실 안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배움이었습니다.



창업동아리 4기 중간성과 캠프와 최우수상 수상



창업동아리 4기 중간성과 캠프와 최우수상 수상

▮ 미래의 창업가로서의 다짐

돌이켜보면 창업은 늘 막연하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TU-VCC 창업동아리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도움을 통해 저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공간, 한차례의 캠프, 그리고 여러 번의 피드백이 모여 제게는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동아리에서 얻은 배움과 만남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키워가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준비한 아이템이 세상에 실현되는 날, 오늘의 경험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소식

Student case

김천대학교 GU-학생지원 All-in-One (올인원) 프로그램 성황리에 종료



신명섭

김천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팀장

김천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단장 고윤희)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GU-학생지원 All-in-One(이하 All-in-One)」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들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학 진리관 앞에서 펼쳐진 All-in-One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사업단이 주최하고 대학 내 혁신사업을 이끌어가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써, 개강을 맞아 학생들에게 2학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전체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보다 유익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교양교육센터, 교육과정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인권센터, 취업창업지원센터 등 총 6개 센터가 참여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팸플릿 배부와 함께 각종 학생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양일간 실시하였고, 세부 프로그램 및 향후 추진 일정 등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 하였다. 2학기에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학습법컨설팅, 코넬노트경진대회, 온라인독서실, 글로런, 위드업(WITH-UP) 페스티벌 및 위드플러스(WITH+), 자기표현력 강화, 글쓰기 공모전, 교과-연계 비교과(WITHUS), PeerLab 공모전, 토레 서포터즈, 자기주도 모듈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 공모전, 글로컬 GU 특강, 취업 및 창업경진대회 등으로 주로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될 예정이다.

또, 향후 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수요 반응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진단 및 요구도 조사도 함께 시행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총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부스를 다녀갔으며, 총장, 주요 보직자, 학과 교수들도 참여한 학생과 운영진을 격려하고자 부스를 방문하였다. 윤옥현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이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교직원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프로그램이 향후에도 지속 개선되어 시행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천대는 이번 All-in-One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남은 2학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혁신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총장 All-in-One 부스 방문



All-in-One 부스 전경



All-in-One 프로그램 관계자 단체 사진

행사소식

Student case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지역사회임팩트센터의 따뜻한 발걸음



신은지

한국성서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직원

▮ 한국성서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 실현

한국성서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는 올해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교육, 복지, 재해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 청소년과 함께한 성장의 여정, '멘토링 순례캠프'

여름 방학 때 진행된 '멘토링 순례캠프'는 전주, 군산, 광주 등 선교사들의 묘역을 순례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로 참가한 재학생 봉사자들은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진로 탐색과 인성 함양을 지원했으며, 순례를 통한 체험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더운 여름날, 순례의 여정 속에 세심하게 자신들을 챙겨주며 격려해 준 멘토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 캠프에도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담은 소감을 남겼다.





▮ 재해 앞에서 보여준 연대의 힘, '긴급 수해피해 복구 봉사'

7월 말, 8월 초에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가평 지역을 돕기 위해 '긴급 수해피해 복구 봉사'가 기획되었다. 가평의 많은 지역이 산사태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 내려와 농가와 생활 터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한국성서대학교는 신속하게 봉사자 모집에 나섰다. 짧은 모집기간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시간을 내어 모였다.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힘을 모아 피해 가정에 쌓인 토사를 삽으로 치우고, 내부를 닦고 청소하며 복구 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이웃의 소중함을 실천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되었다.



III. 이웃사랑의 따뜻한 한끼, '사랑의 여름밥상'

무더운 여름철, 지역사회임팩트센터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여름밥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김치(5kg)와 삼계탕을 전달하고 혈압을 측정해주는 봉사였다.

특히 이번 봉사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모집에 지원하여 이루어졌는데,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우는 “방문했던 가정에서 처음 보는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대화해주셨다. 우리의 작은 나눔에 감사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포터즈

Supporters

The JoongAng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6기 해단식

입력 2025.09.02. 오전 10:22 수정 2025.09.02. 오전 1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회장 이주열)는 8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6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6기는 4개월간 총 24명의 대학생이 전국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소개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번 해단식은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포터즈 참여 활동 소감 공유, 수료증 수여 및 우수 서포터즈 시상 등이 이어졌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이주열 회장은 서포터즈 6기 활동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서포터즈들이 제안한 방식을 참고해 2026년에는 더욱 향상된 지원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우수 서포터즈 수상자 명단

▲ 최우수상 김지현(동의대) ▲ 우수상 김정민(단국대) ▲ 우수상 정인혜(선문대) ▲ 장려상 강다현(상명대) ▲ 장려상 심예림(상명대) ▲ 장려상 김소미(연세대 미래캠퍼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6107>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6기 해단식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이주열 회장 개회사



서포터즈 수료증 수여

우수 서포터즈 시상



우수 서포터즈 단체 사진

서포터즈 단체 사진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6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6호(12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고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어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안내

원고응모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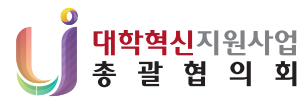
▶ 대학혁신지원사업 138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원고분량

▶ A4 2매 이내로 제한

행정사항

1.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 2025.11.14. (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출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0624@gmail.com)
5.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 055) 320-321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 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320-3216 TFX. 055)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